

2년국 온실가스감축량 21%가

- 산림청, '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('23~'27)' 수립

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7월 10일(월),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%인 3,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'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('23~'27)'을 발표했다.

본 종합계획은 '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('23~'42)'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.

'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'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**로 나무를 심고-가꾸고-수확하는 산림순환 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, ② **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**을 위해 도시숲 조성, 유희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.

③ **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**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, ④ **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**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.

⑤ **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**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(REDD+) 등 국외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, ⑥ **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**을 위해 연구개발(R&D), 통계 검증체계,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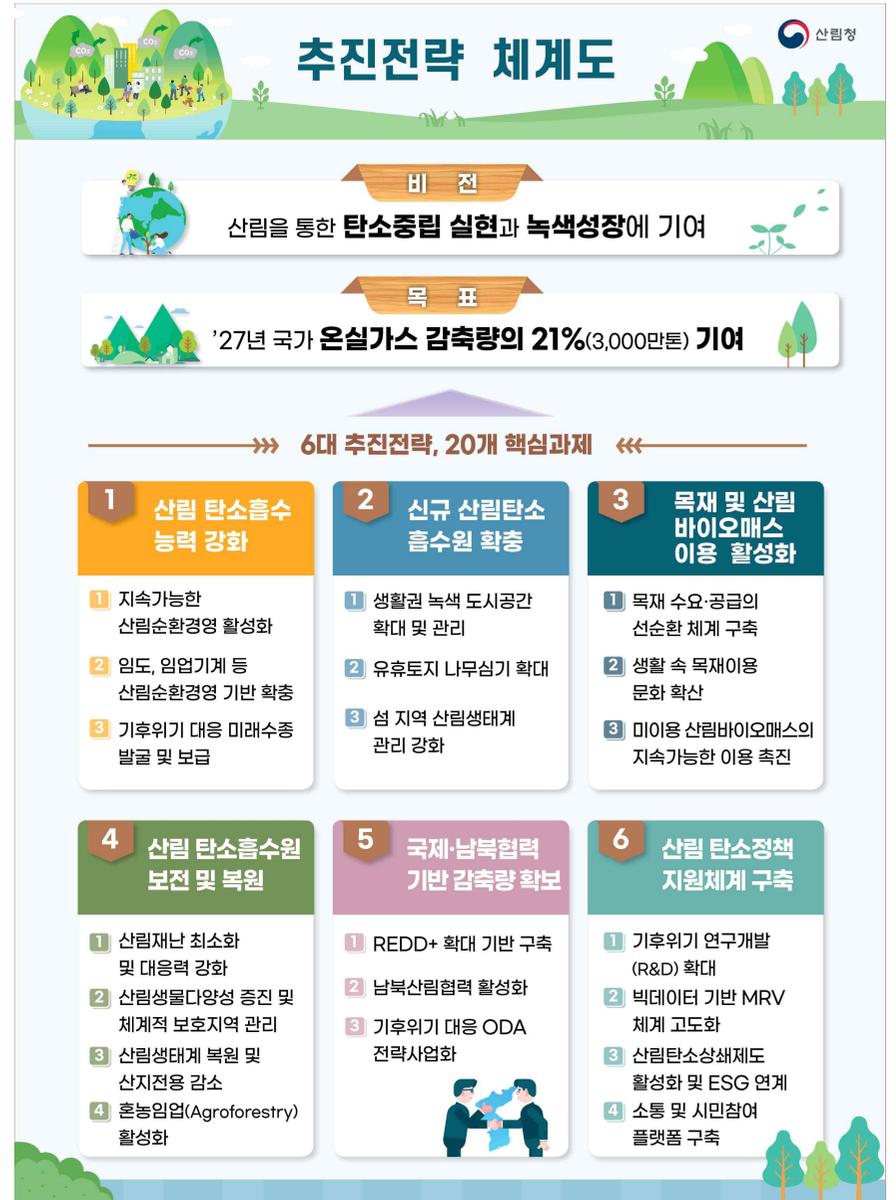
남성현 산림청장은 "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,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붙임: 1. 추진전략 체계도 2. 기대효과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산림산업정책국 | 책임자 | 과 장 | 전덕하 (042-481-4130) |
| | 산림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민지 (042-481-4199) |

붙임 1

추진전략 체계도



* REDD+ : 개도국 산림전용·황폐화 방지, MRV : 측정·보고·검증으로, 탄소통계 투명성 확보 수단

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추진 전략에 따른 기대효과



| | 추진 전략 | '27년 기대 효과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국내 산림 |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| ☑ 2,826만tCO ₂ 젊고 건강한 산림으로 흡수원 기능 증진 |
| |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| ☑ 7만tCO ₂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신규 흡수원 확충 |
| |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| ☑ 120만tCO ₂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저장고 증대 ☑ 104만tCO ₂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전환 부문 감축 |
| |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| ☑ -57만tCO ₂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림 손실에 따른 배출 저감 |
| 국외 산림 | 국제·남북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 | ☑ 500만tCO ₂ REDD+ 사업으로 국외 감축원 확보 <small>* 국가 NDC 로드맵에 맞춰 '30년까지 확보</small> |

'27년 총 [3,000만tCO₂] 흡수, 국가 탄소배출 5% 상쇄, 국가 감축량 21% 기여

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
4,350억원 감축 효과!



* 2023년 3월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14,500원/tCO₂

국내 누적 등록된 자동차 전체가
연간 배출하는 CO₂ 98% 흡수!



* 승용차 1등급, 연간운행거리 15,000km, 누적 2,550만대('22)